

# 조국통일에 대한 종교인의 과제

김 몽 은 신부

〈 천주교 연희동 교회 주임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 회장 〉

## 1. 남북관계의 현재의 상황

금년이 왕복 50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고, 남북관계를 둘러싼 국제적인 정세가 급속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통일문제를 주제로 삼게 된 것은 시의 적절하고 당연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남북관계는 지금 미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작년 7월에 김일성이 갑자기 사망하여 남북정상회담이 무산되자 남북관계는 다시금 과거의 냉각상태로 되돌아 갔고, 오히려 갈수록 남북한 사이에는 감정적 대립과 불신이 두텁게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북한이 남한을 제쳐둔 채 제네바합의를 통해 핵문제를 타결지음으로써 남북관계만 더욱 미묘한 형태로 꼬여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북한의 종교인 대표가 미국을 방문하기도 하고 일본을 방문하는 등, 정치권 밖으로 어떤 활로를 찾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분간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남한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고집스럽게 부정적입니다.

---

이 글은 1995년 5월 26일 개최된 본협회 제53차 세미나에서 강연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김일성이 사망하면 북한체제에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던 일반적인 관측마저 빛나가, 아직도 북한은 오리무중의 대상일 뿐입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남한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취해오던 대남통일전선식의 공작적 태도를 그대로 견지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남북관계는 그 어느 곳에서도 본질적인 변화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팎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을 찾는 인간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는 신앙적인 확신과 함께, 역사가 증언한 바, 곧 구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의 붕괴를 가져온 세기적인 변화의 물결이 교조적인 북한체제를 그대로 남겨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시적인 관측이 설득력있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한 예도 있고 해서, 통일을 갈망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흡수통일 하지 않을 수 없는 생각이 날로 만연돼 가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억압돼 있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현금의 북한 상황으로 미루어, 어쩔수 없이 개방정책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북한의 입장을 생각할 때,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대가 확산됨에 따라, 김수환 추기경께서 흡수통일에 대한 무책임한 환상을 경고하고, 과연 우리 사회가 갑작스런 통

일이나 정치적 흡수통일에 직면하였을 때 이를 감당할 만한 도덕성을 지니고 있는 지를 다시 한 번 돌이켜 생각해 보도록 일깨우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 종교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북한에 모든 재산을 두고 월남해온 이북민들의 귀향문제와 그에 따르는 여러가지 부작용 문제.

둘째, 그와는 반대로, 북한 지역에서 밀려 다쳐 올 난민(?)에 대한 처우와 그들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하느냐의 문제.

셋째, 분단 반세기 동안 철저하게 반복음적인 이념과 체제하에서 살아온 북한사회를 대상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넷째, 통일후,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모든 상황이 불합리하게 여겨질 때, 그 모순처럼 보이는 기간을 참지 못하고 독일 통일의 경우 처럼 '통일후의 분열'이라는 형태로 새롭게 제기되는 제반 갈등과 대립 양상을 어떻게 치유해 나갈 것인지 등에 대해 이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 2.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

천주교(북한 선교 위원회)에서의 통일을 위한 경과보고 형식으로 금년도 춘계 주교 회의에서의 왜관 분도회 이동호 아바스의 발표를 인용하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985년 이후 지난 10년간 북한선교위원회는 기도운동과 계몽운동에 힘을 쏟아 왔습니다. 후원회원들과 함께 매월 월례미사를 봉헌하고, 때로는 철야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 운동을 전개해 나갔으며 1992년부터는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을 '민족적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를 준비하는 '9일 기도회'를 전교회적으로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계몽운동의 차원에서 1988년 5월에

<통일사목연구소>를 창립하여 통일사목의 방향을 정립하고, 북한의 종교정책을 분석하며 남북한 종교교류에 있어서 한국 교회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연구와 발표를 계속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타 교파에서도 북한선교와 통일에 대비하여 범종교적인 협력을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참여하여 남북관계의 변화를 주목하고 필요한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이런 일들이 벽찬 면도 있고, 전문성을 요하는 측면도 있어서 92년 4월에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사회 각계 각층에서 활동하고 계신 평신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본인이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KCRP)에서도 직접·간접으로 조국 통일을 위해 나름대로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986년도에 열린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ACRP)때도, 그리고 인도에서 열린 "세계 종교인 평화회의"(WCRP)때도, 북한의 종교인들을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1994년도에는 본인과 개신교 아카데미 하우스 원장인 강원룡 목사를, 북한 종교인협회에서 초청장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이것은 정부의 통일방안 창구의 일원화정책으로 인해, 방문을 보류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국의 개방정책이 확대되고 한국과의 국교수립이 이루어지는 등 급격한 변화를 가져와 이제는 한국 교회의 여러 수도단체와 사회복지단체가 이곳에 진출하였고, 몇몇 교구 차원에서 이곳에의 진출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아직도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고, 바티칸과의 관계 개선을 매듭짓지 못한 상태일 뿐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선교활동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여러 가지로 염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통일노력을 늦추거나 중지할 수는 없습니다. 더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야 할 줄 압니다.

현재 북방선교협의회에는 교구와 수도단체, 평시도 사도직단체 등 약 30여 단체가 망라되어 있고, 계속해서 북방선교와 대북선교에 뜻을 두고 있는 단체들의 참여 의사 표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종교인평화회의(KCRP)에서도 여러가지 면에서, 북한의 선교를 위한 정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교파는 물론, 종교의 벽을 넘어서, 서로의 협력하에 동일한 창구를 통한 것과, 난민과 환자, 양로원, 고아원 등의 사회봉사의 일원화등을 갖가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사용도 역시 공동의 관심사에 사용할 것 등을 결정하는 한편, 결코 자파, 자기 종교만의 이익을 위한 독자적 활동의 자제 등도 협의한 바 있습니다.

### 3.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북한 종교계의 동향

현재 북한지역의 종교가 어떤 상황인지는 상세히 알 길이 없습니다만, 외신보도나, 북한이 내세운 종교정책, 그리고 북한을 다녀온 인사들의 증언등(물론 이것도 걸 훑기 식이긴 하지만) 여러가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북한 지역에서의 교회 모습은 6.25를 전후하여 극심한 박해 속에 목자 없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해방 당시 약5만 여명에 이르던 신자 수도 6.25 이후에는 월남하거나 전쟁 중에 사망하여 겨우 1만여 명 정도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연 정확히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북한 사정에 대해서는 장 익 주교님께서 87년 6월에 북한을 다녀 오셨고, 평양에 장충성당이 88년 10월에 세워지자마자 11월에 또 다녀 오셨기 때문에 저 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북한에서는 장 주교님이 87년 6월에 다녀 가신 것을 계기로 해서 신자 단체를 결성하기로 하여 88년 6월에 <조선천주교인협회>를 결성하였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의 예를 든다면 <조선천주교인협회>라는 것이 한국 교회나 바티칸과 의논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실제로 북한 교회를 교회 본연의 모습대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권한을 지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교회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오히려 북한 당국이 이를 내세워 한국 교회와의 정치적 접근을 하면 할수록 교회가 아닌 명목상의 유사단체를 상대하도록 강요받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만약 어쩔 수 없이 이를 상대하게 되면 결국은 이를 교회로 인정해 주는 결과가 될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정이 우리로서는 풀기 힘든 딜레마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장충 성당 신자들을 일종의 신도공동체로 인정하고, <조선천주교인협회>는 북한 당국과의 접촉 창구로 간주하는 수준에 머물러 가능하면 북한 당국과 직접적인 접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북한 체제의 속성에 비추어 보거나 최근의 동향을 볼 때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조선천주교인협회>와 그 대표자인 장재철(조선천주교인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조선종교인협회회장)의 정치적 역할과 그 위상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우기 90년대 이후 해외 교포 신자들의 방북과 국내 신자 정치인들의 방북이 늘어 나면서 평양 장충성당의 체제를 정비하고, <조선천주교인협회 중앙위원회> 명의로 교리서와 기도서까지 만들어 대외적으로 이를 선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더 전문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저 나름대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실천사항을 생각해 봤습니다. 앞으로 더 훌륭하고 효율적인 방안들이 나와, 우리 모두 통일을 위해 심혈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1. 남북한 신자들간의 상호 만남의 적극적인 추진
2. 특히 성탄절의 예물 교환, 부활절의 공동미

사(예배), 성신강림 시기와 합동 기도회 등

3. 남북한 합동 성지순례

4. 신자들의 고향방문

5. 북한 교회의 성직자 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등

6. 사랑의 쌀(통일 쌀) 보내기 운동(이것은 이미 KCRP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여러가지 면에서 우리들 종교인이 발벗고 나서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모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앞으로 북한 사회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예상치 못한 급변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점진적인 대북교류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 천주교회는 '2천년대 복음화'를 위한 사목 방향을 정립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1세기 통일민족사회에서의 사목구현이라는 미래지향적 접근 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금세기 안에 평화통일이 달성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반도의 냉전적 대치 상황은 2,3년 안으로 현격히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로서는 남북관계가 쉽게 풀어져 나갈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불원간 어쩔 수 없이 상호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시대로 진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남북관계의 구조적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첫째는, 북한체제의 갑작스런 붕괴로 인한 흡수통일의 경우에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국제정세에 따라, 불가피적으로 개방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따라 점차적으로 남북교류가 이루어 질 것을 대비해야 한다는, 그것입니다.

이상 두 가지 상황을 예상하고, 그 어떠한 상황이 닥쳐 오더라도, 그 변화에 적절히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와 각오가 요청됩니다.

첫째, 실제로 갑작스런 통일이 이루어 진다면

문제는 결코 단순치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이 단순히 재북 교구를 돕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런 통일은 남북한 사회 전체를 극도의 혼란 속에 빠져들게 만들 것이고, 이에 따라 문제는 더욱 복잡해져서 너 나 할 것 없이 정신차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새롭게 야기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예상치 못하던 여러 형태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에 봉착하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북한 지역은 또 다시 버림받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러 저러한 모든 경우를 가상하여 면밀한 검토와 연구를 서둘러야만 합니다.

둘째는, 점진적으로 통일을 이루게 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이야기는 비교적 쉬워집니다. 갑작스런 통일의 경우에 예상되는 극심한 혼돈상황을 피할 수 있고, 준비만 잘 된다면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예상되는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서독의 경우를 보면 준비를 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통일이 닥치면 생각지 못하던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독의 통일원인 내독성 관리가 "그동안 서독 정부에서 준비했던 프로그램들이 통독 과정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솔직히 털어 놓기도 했는데, 동서독의 경우가 그러하다면 우리의 경우 과연 어떠한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최근 특히 김일성 사후의 남북관계와 한반도 통일문제를 다루는 학자들에 따르면 남북관계는 북미합의서의 채택으로 인해 장기적인 공존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북미합의는 미국 뿐 아니라 서방세계가 핵카드를 포기한 북한에게 생존을 보장해주는 전략을 택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북한에게 생존을 보장해 주는 것이 붕괴를 촉진시키는 것보다 덜 위험적이라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나 서방세계로부터의 생존위협은 줄어든 반면 오히려 그동안 적대적 대립을 지속해온 남한이 그네들의

<체제 유지>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남한과의 관계 개선은 맨 뒤로 미루어 놓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남북관계는 장기적인 공존을 모색하면서 주변 여건의 변화를 감안하는 가운데 단계적으로 평화정착과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모습으로 안정을 찾아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단계에서 우리로서는 갑작스런 통일과 함께 장기적인 공존을 통한 남북한 사회의 통합에 이르는 모든 경우를 대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굿이 우선 순위를 정한다면 장기적인 공존 모형에 중점을 두면서 갑작스런 통일에 대해서도 유념하는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접근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특히 어느 날 갑작스런 통일이 닥치면 해방 직후나 동란 직후와 같은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준비없는 통일이 가져올 생존권의 문제 내지는 생활환경의 파괴 위협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종교단체의 재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뿐 아니라 종교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참여에 대한 요구를 상대적으로 높여갈 것이라는 점도 강조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후 극도의 가치혼란을 경험하게 될 북한사회는 새로운 신념체계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여 폭발적인 신앙입문사태를 몰고 올 것이라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교회는 단순히 이들을 입교시키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통일민족사회의 미래를 열어 나가는 삶의 기준과 행동양식을 훈련 적응시키는 제도기능까지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분석은 통일이 몰고 올 사상적 혼란과 생활양식의 혼돈에서 빚어지는 모든 문제를 종교적인 정신에 비추어 식별하고 판단하여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통일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이 프로그램을 준비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 4. 통일에 대비한 우리의 앞 길

한편 대북 선교를 놓고 보면 아직도 직접적인 선교를 말할 수 있는 단계가 못되고, 중국 연변 지역을 통한 간접 선교의 가능성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전망 뿐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어느 정도 중국 방문이 가능해진 80년대 후반부터 연변 지역 교회를 돌보기 시작하여 공소 건립을 돕고, 성서와 성물을 전달하는 등 간접 선교의 기틀을 닦아 왔습니다. 예를 들면 연변 교회의 신자들을 북한에 친척 방문으로 방문케 하여 북한에 남아 있는 친지들이 아직도 신앙을 간직하고 있는지 또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한 우리의 통일 노력의 앞길에 대해 개략적이거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종교계는 어떻게 통일에 대비해야 할 것인가? 이에 관한 논의는 대체로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나는 인적 차원의 준비이고, 또 하나는 물질 차원의 준비입니다.

인적 차원의 준비는 교회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우선 성직자와 수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지만, 통일문제와 관련해서는 평신도의 역할이 크게 부각됩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시대를 대비한 성직자 양성입니다. 특히 재북교회 소속의 성직자가 극소수이므로 앞으로 북한선교와 통일문제 분야를 전담할 특수사목 담당 성직자의 양성이 시급합니다.

특히 천주교와 다른 종교의 수도자들은 오히려 혼란한 시기에 보다 적극적인 종교활동을 펼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선교에 관한 특수한 카리스마를 간직해온 수도회들은 통일 민족사회에서 가장 직접적인 도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특히 평신도들의 경우 각종교안에도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효율적으로 조직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시

대를 맞는 새로운 종교인의 위상 정립과 창조적 발전을 기약하기 위해서는 평신도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통일시대의 종교적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평신도 지도자와 선교사들의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면에서의 준비는 통일기금의 마련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미 3년전부터 각 성당 예산의 3%를 통일기금으로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기금이 단순히 통일 후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종교가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떻게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고, 준비를 갖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마치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하여 남북경협 등에 대비하는 것처럼 통일기금은 1차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각종교의 물질적 준비를 위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재정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중·장기적으로 북방선교훈련원 같은 것을 만들어 대북 선교를 위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선교사, 지도자, 통일사목을 보조할 액션단체 간부 등에 대한 전문교육과정을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훈련원에서는 인력 양성 뿐 아니라 통일사목을 위한 교육 교재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각 교구, 본당, 사도직단체 등에서 충실한 통일사목이 이루어지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5. 전 망

끝으로 우리 종교인들이 우선적으로 당면한 문제의 전망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북한 교회의 실태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대북 선교의 관점에서 북한이 내세운 <조선천주교인협회>를 비롯한 기타 종교 명목의 단체들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액션을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대북 선교와 통일문제에 대해 종교적인 입장에서 이를 검토하고 깊이 연구할 전문인력의 양성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셋째, 갑작스런 통일에 대해서도 종교가 어떤 형태로든 대비책을 마련해 두어야 하겠다는 점도 중요한 준비과제입니다.

넷째, 북미관계의 개선으로 한반도 주변 통일 환경이 호전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남북한 간의 종교교류도 활발해질 수 있을텐데 대북선교의 차원에서 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섯째, 단기적으로는 남북경제교류의 물꼬가 트일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선 나진-선봉 자유경제 무역지대에 경제인들이 진출할 수 있게 되어 이들을 위한다는 명분 하에 각종교의 진출이 예상되므로 남북경협을 대북선교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째, 통일 이전과 이후를 막론하고 현실적 의미로 부각되는 통일사목의 구현을 위해 각종교 단위로 그리고 초교과적으로 기도운동, 계몽운동, 자선의 실천운동을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곱째, 이러한 노력과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적인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므로 통일기금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숙고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은 광복 50년, 분단 50년을 맞는 해이므로 한국의 종교적 차원에서도 이를 뜻깊게 되새겨 보고, 시대적 징표를 증거하는 각종교 단위, 또는 초교과적 공동 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밖에도 종교인들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아무런 조건이나 정치적 이해관계 없이 순수하게 통일을 위해 나설 수 있는 곳은 종교 단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